신지도, 재상과 같은 큰 인물 태어날 곳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25〉

■ 완도, 해상왕국 따르는 대혈

땅의 원국(垣局)이 하나의 왕국을 세울만한 기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이 명당을 따르고 보호하는 가운데 억겁의 물이 모여드는 형태로 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도는 크고 작은 200여개의 섬과 1천여개의 명산이 호종하고, 탐진강과 영산강의 대강수(大江水)가 감싸 안으면서 동서남해의 해수가 조당(潮堂)하고 있다.

따라서 완도읍과 그 주변일대를 풍수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소위 새로운 개념의 '해상왕국'을 세울 수 있는 대기(大基)로서의 기상과 면모를 충분히 갖춘 길지(吉地)라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으며, 상서로운 땅기운이 새롭게 응집되고 있음을 감지 할 수가 있다. 이처럼 큰 기운이 한 곳에 결집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음기와 땅의 양기가 서로 융회하고, 이를 온전히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호종(護從)하는 기운과 더불어 그 기운이 응집된 혈(穴)이 있어야 한다.

소안도, 신선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

그 결혈처들을 살펴보면 우선 신지도의 주혈인 '아기코끼리가 할머니코끼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주상고조형이 상산(象山)에 있는데 기묘하게도 혈이 귀(耳)에 맺어 있어서 주혈은 보기가 어렵다. 또 신지도의 진산인 노학봉이 치도(稚島)를 바라보고 혈이 맺혔으니 늙은 학이 새끼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소위 노학망치형(老鶴望稚形)이다. 또한 옥인장지(玉印壯紙)가 마치 문장주필처럼 둘러있는 가운데 재상필이 우뚝 서 있으니, 벼슬이 국무총리에 이르고 이름은 천추에 빛이 날 인물을 배태한 대혈중의 갑지(甲地)이다.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동복오씨와 김해김씨가 월항리에 터를 일구어 정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소안도는 풍수적으로 육지 못지않게 장풍득수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산세가 굳세고 당당하여 능히 신선도 살만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아름다운 곳이다.

완도 최남단에 위치한 당사도(唐寺島)의 결혈처.

소안도의 가학리 뒷산에 '신선이 학을 타고 가다가 부모가 있는 북쪽 고향을 바라 본다'는 뜻의 가학망북형(駕鶴望北形)이 맺었는데 부귀(富貴)가 겸전(兼全)하지만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니 그것이 흠이다. 또 미라저수지 위에 일대혈이 산정에 기룡체(起龍體)로 숨어있으니 '신선들이 모여서 동서로 편을 갈라 놀고 있는 모양'의 선인취회형(仙人聚會形)이 임감맥(壬坎脈)을 의지하고 있다. 이 혈은 사대부혈이지만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박사학위정도의 먹물이 배인 여자가 들어가면 몰락한 집안을 하루아침에 명문세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대지이다.

특히 완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당사도는 비보풍수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사도는 그 크기가 3.85㎢의 꽤 큰 섬으로서 선조 때에 청주황씨와 나주임씨가 임진왜란을 피해 처음으로 입도한 후에 김해김씨와 전주이씨 등이 들어와서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당사도의 본래 이름은 '항문도'였으나 다시 '자지도'로 고쳤다가 1982년에 당사도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개명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이 섬은 본래 무인도였는데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당나라의 상선은 물론이고 고위 인사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그 가운데에 풍수지리에 일가를 이룬 도인 하나가 지금의 당사도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곳이 당나라에서 바라보면 임금 '왕(王)'자의 형세이고, 신라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섬이 하나 있어서 구슬 '옥(玉)'자가 되니 참으로 기묘하도다. 또 생왕(生旺)하고 기괴한 서기가 서려있으니 이것이 곧 왕기(王氣)로다. 그 기운이 너무 강하여 이 곳에서 제왕이 태어난다면 필시 당나라가 신라의 속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당나라로 되돌아가 황제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황제는 그 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비보케 하였다. 그래서 그 도인이 다시 돌아와서 임금 왕(王)자의 가운데 획의 혈처를 깎아내리고 그 곳에 '절' (寺) 지어 구슬 옥(玉)자가 되게 하였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당나라의 절이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당사도(唐寺島)'라 불렀다.

당사도, 당나라서 보면 '王'자형

당사도의 북서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이 섬과 당사도를 합치면 날생(生)자의 글자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섬을 "본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술로 결합하여 임금왕(王)자를 날(生)자가 되게 하였다"는 의미로 '복생도(卜生島)'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비보 때문에 당사도에서 제왕이 태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왕국도 세워지지 못했다. 풍랑에 수없이 침몰되던 당나라의 무역 선단은 당사도의 절에 무사고를 기원하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냄으로서 침몰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한반도의 구슬옥자는 그 상서로움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당나라를 일방적으로 왕성하게 했다고 하여 당나라에서는 '복생도(卜生島)'가 아닌 '복생도(福生島)'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전종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정신, 표류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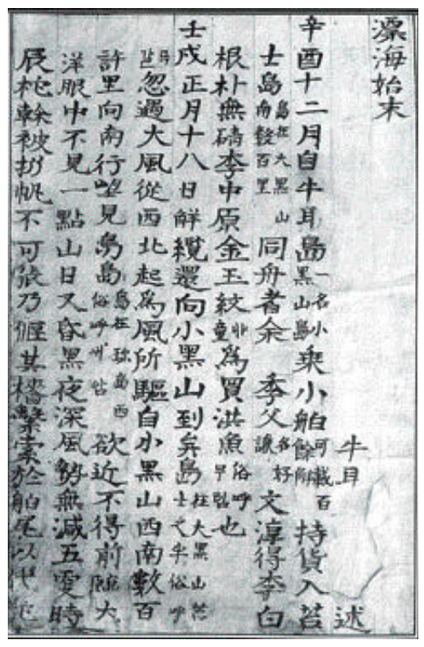
조선 문순득 표해록 통해 필리핀 표류인 돌려보내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뜻밖에도 엉뚱한 곳에 표류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 표류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런 표류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에 표류인에 대하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랑'병생지인(竝生之仁)'의 정신으로 대하는 원칙이 예전부터 있어 왔다.

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변으로 잔뜩 왜적에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에도 왜적과 표류인은 엄히 구분하여 대하였다. 왜구가 날뛰던 때에도 표류 왜선은 분명히 왜구와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일본측이 "표류한 사람이 귀국(貴國)에 도달하면 살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우리 측도 "귀국의 백성도 우리의 백성과 같으니 한결같이 사랑해야 일시동인(一視同仁) 마땅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처였다.

조선인도 당연히 일본 땅에 표류하곤 하였는데, 일본 역시 이런 사랑의 원칙을 지켜주었다. 그런 사랑의 원칙이 낳은 소중한 표류의 기록이 있으니 바로 '유암총서(柳菴叢書)'에 실린 표해시말(漂海始末)이란 글이다. 표해시말은 우이도 사람 문순득의 표해기록인데 마침 흑산도에 유배 왔던 정약전과의 만남을 통해 전해질 수 있었다. 문순득은 1801년(순조 1년) 12월 표류하여 오키나와에서 8개월, 필리핀에서 약 9개월, 중국에서 약 14개월을 체류하다가 1805년 1월 8일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만 3년 2개월간의 대장정이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표류하면서도 마침내 고향으로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표류인에 대한 사랑의 원칙 때문이었다.



漂海始末

辛酉十二月自牛耳島黑山名島小乘小舶士島南發百里大黑山同舟者余季父謙名餘慶字好文淳得李白持貨入茲根朴無碻李中原金玉紋壹非爲買洪魚早俗呼也士戊正月十八日解纜還向小黑山到弁島士在大黑山忽遇大風從西北起爲風所驅自小黑山西南數百里許里向南行望見島島在珍島西俗呼州沓欲近不得前隨大洋服中不見一點山日又昏黑夜深風勢無減五更時辰柁輪被折帆不可張乃艇其檣繫索於舶尾以代述

문순득의 표해기록을 담은 표해시말

이런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았다. 1801년에 필리핀(呂宋國) 사람 5명이 제주에 표류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필리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돌려보낼 수 없었고 시간은 자꾸 지나갔다. 그러는 사이 2명이 죽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문순득의 표해록을 통해 비로소 그들이 필리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 무사히 돌아온 문순득의 기록이 바로 표류한 필리핀 사람들을 무사히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의 원칙을 담은 표류문화가 낳은 연극 같은 사실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정신은 뱃사람들로부터 배워야할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고석규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24)

"뚜부 한 모에 얼매라요?"

우리 말의 변천사를 보면 17세기를 전후한 근대국어 시기로부터 'ㄱ·ㄷ·ㅂ'등의 평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곶(花)>', 곳고리>[redacted]리, 구짖다(叱)>[redacted]짖다, [redacted]다>[redacted]다, 불휘(根)>[redacted]휘 ; 갈>칼, 고>코, 닷>탓, 불무>풀무'등이 그렇다. 이것은 된소리나 거센소리의 청각적 가치를 이용하여 표현을 한층 명료하게 하려는 언중의 심리에서 나온 강화현상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방언 분포를 보면 이런 경향이 중부방언에 비하여 경상·전라도 등 남부방언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된소리화는 아마도 전남의 동남부에서 먼저 형성되어 점차 북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에서도 내륙보다는 해안·도서지역에 이런 현상이 강하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가락지→까락지, 가죽→까죽, 가지→까지, 고사리→꼬사리, 고추→꼬치 ; 닦다→딱다, 대롱→때롱, 도랑→또랑, 두꺼비→뚜께비, 두부→뚜부 ; 반듯이→빤듯이, 번데기→뻔데기, 비둘기→삐둘기 ; 사납다→싸납다, 삶다→쌂다, 소나기→쏘내기, 수수→쑤시 ; 작달비→짝달비, 장아찌→짱아찌, 조금→쪼금/쪼깐' 등.

/ 이 돈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현호색

양귀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산지 숲 속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키는 20cm 정도다.

남부와 중·북부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4~5월이다.

실바람만 불어도 흔들거리는 앙증스럽게 예쁜 꽃이다. 한방에서 뇌염과 진통, 호흡 진정제로 쓰이나 유독성 식물이다.

/라규채 생태사진가